

27 **창천교회 100돌 '문화심터 아카데미' 개설**
서울 창천동 창천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 문화 사역자 양성을 위해 '문화심터 아카데미'를 개원한다.

29 **폐종양 딛고 일어서 하나님 말씀 전도**
폐종양을 딛고 일어서 박진수 장로는 위험한 뱃길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06년 3월 23일 목요일 (제5302호) **25**

5남매 모두 목회자 된 믿음의 명가

각자의 달란트로 개성있는 사역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례로 주님의 종이 돼 믿음의 명가를 이룬 5남매 목회자와 그 가정의 동역자로 들어온 한 명의 목회자. 왼쪽부터 장남 김수태, 차남 김경옥 목사, 장남 김동일, 삼남 김홍태, 장녀 김경옥씨와 남편 박세제 목사.

여기에서 김경옥 목사의 남편 박세제(무안 현복교회 담임) 목사까지 포함하면 일가 6명이 예상 통합의 목회자로 헌신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달란트를 살린 개성 있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경옥 목사의 경우 복지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김수태 전도사는 교육과 전도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김홍태 목사는 어린이 선교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김홍태·동일 전도사는 음악을 전공한 찬양 전문가다. 그래서 이들은 가끔 한자리에 모이면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한 팀 사역을 해보자는 말을 하기도 한다.

지금이야 하나님 안에서 모두 행복을 구가하지만 5남매가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5남매 목회자'는 교회 출석을 극력 막는 부친의 엄청난 핍박을 극복하고 이뤄낸, 그야말로 '투쟁의 산물'이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매를 맞기도 하고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심지어 주일에 때문에 빗장을 지르기도 했지만 그들은 욕상을 통해 담을 넘

5남매가 모두 주님의 종이 돼 각자의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믿음의 명가'가 있다. 여성 목회자인 장녀 김경옥(46·전남 무안 현복교회 교육담당) 목사를 비롯해 장남 수태(42·경기 구리 두레교회) 전도사, 차남 상태(38·경기 고양 거북한빛광성교회 파송 필리핀 선교사) 목사, 3남 홍태(35·경기 광주 양문교회) 전도사, 막내 동일(32·대전신대 재학, 찬양사역자) 전도사 등 4남1녀가 그들.

복지·어린이 선교·찬양 전문가로 활동 장녀 김경옥 목사 남편도 주님의 종 헌신

이들의 믿음은 맨 위인 김경옥 목사로부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남동생들을 차례로 교회로 인도했다. 일찌감치 신학에 뜻을 둔 그녀는 장신대학교를 마치고 오랜 기간 전도사 생활을 하다 박세제 목사의 사모가 된 뒤 목사 안수를 받았다. 장남 김수태 전도사의 경우 대형 병원 사무장으로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다 영적 허기를 채우지 못해 30대 후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다음달 두레교회에

이들의 믿음은 맨 위인 김경옥 목사로부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남동생들을 차례로 교회로 인도했다. 일찌감치 신학에 뜻을 둔 그녀는 장신대학교를 마치고 오랜 기간 전도사 생활을 하다 박세제 목사의 사모가 된 뒤 목사 안수를 받았다. 장남 김수태 전도사의 경우 대형 병원 사무장으로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다 영적 허기를 채우지 못해 30대 후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다음달 두레교회에

이들의 믿음은 맨 위인 김경옥 목사로부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남동생들을 차례로 교회로 인도했다. 일찌감치 신학에 뜻을 둔 그녀는 장신대학교를 마치고 오랜 기간 전도사 생활을 하다 박세제 목사의 사모가 된 뒤 목사 안수를 받았다. 장남 김수태 전도사의 경우 대형 병원 사무장으로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다 영적 허기를 채우지 못해 30대 후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다음달 두레교회에

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차남 김상태 목사는 집안의 문제아였으나 누나와 형제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힘입어 파이디온선교회 간사를 거쳐 목회자가 됐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가장 많다.

3남 김홍태 전도사는 음대를 마치고 군종 하사관으로 7년 동안 복무하면서 성경과 대학원을 수료한 뒤 전역 후 다시 장신대에서 공부했다. 그는 현재 백석대 기독교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오는 10월 목사 안수를 받는다. 막내 김동일 전도사 역시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학업을 하면서도 찬양 사역자로서 활발하게 뛰고 있다.

김경옥 목사는 "일부러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도 5남매 모두 목회자가 되리라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이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린다"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사역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정수경 기자 sagu@kmib.co.kr

기독교청소년 88% "부활 믿는다"

문화선교단체 팻머스 조사

기독교청소년 10명 중 9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선교단체 팻머스(대표 선량옥)는 지난달 20일부터 3월11일까지 서울 경기 경상 충청 지역 기독교·고등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부활절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해 대부분 기독교청소년들이 부활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12%에 달해 교회를 중심으로 부활신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믿지 않는 이유로는 '내가 보지 못

했기 때문'(4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16.4%),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아서'(9.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청소년 대부분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 힘쓰겠다'(70.7%)고 응답했다. 반면 '듣기만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15%) '다수 의견에 따라간다'(5.9%) 등 소극적인 모습도 20%가 넘었다.

선량옥 대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 기자 y27k@kmib.co.kr

선한사람들, 필리핀 양돈사업 계속 지원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선한사람들(이사장 조용기 목사)은 필리핀 잠발레스주 카스틸레오스 지역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 마련을 위해 현지의 양돈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선한사람들은 지난해 이 지역에 30마리의 돼지를 지원했다. 최근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선한사람들 대표단은 22일 "현재 돼지가 90마리로 늘어 현지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게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한사람들은 먼저 가구당 암수 2마리의 새끼 돼지를 분양하고 사료

와 양돈 기술을 전수, 양돈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선한사람들은 지난 13~18일 잠발레스주 산마르셀리노 막사이사이 기념병원에서 80여명의 필리핀인 백내장 환자들을 치료했다. 봉사현장을 방문한 김순배 선한사람들 회장은 "6·25 참전국인 필리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2001년부터 진행해온 결핵퇴치 사업과 백내장 수술 사업, 양돈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필리핀 사람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노희열 기자 hkroh@kmib.co.kr

겨자씨

변화시키는 교회

머칠 전 교회 사무실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술



너무 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과거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던 교우들이 변화돼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드리게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무장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 그 누가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 사람의 화풀이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정희열 목사(예수마을교회)

「성경전서 새번역」

www.bskorea.or.kr

학생, 청년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추천 1위 새번역 성경!

한국교회 16개 교단의 성서학자, 국어학자들이
17년간의 개정과 감수를 거쳐 원문을 번역한 쉬운 우리말 성경.

정확한 번역!

원문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번역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쉬운 표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빠른 우리말!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어투와 잘못된 문장을 바로잡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육과
예배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한성서공회

02-2103-8741~3
www.bskorea.or.kr